

지방금융, 또 신흥국 진출 잔걸음… 소액금융 공급 주력

BNK금융, 中·인도 등 9개국 진출
iM뱅크, 베트남·中서 영업점 운영

아시아 신흥국, 높은 성장률에도
금융인프라 미흡에 이익 가능성
유학생 등 外人고객 영업도 확대

지방금융지주가 아시아 신흥국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각 지방금융은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잦았던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서도 현지 금융 환경에 특화된 ‘소액금융’ 공급에 주력하고,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BNK·DGB·JB)은 지방 소멸과 영업이익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아시아 신흥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대 지방금융이 진출한 아시아 국가는 10개국에 달한다.

BNK금융은 지방금융 가운데 가장 많은 9개국에 진출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미진했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은행은 중국·베트남에서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현지사무소를 설치해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BNK캐피탈은 미얀마·캄보



DGB금융의 라오스 현지 소액금융 전문 법인인 ‘DGB DLMC’의 영업점 모습. 소액금융(마이크로파이낸스)은 신흥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DGB금융

디아·라오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소액금융(마이크로 파이낸스) 자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DGB금융은 두 번째로 많은 6개국에 진출했다. 이 중 5곳은 인도차이나 주변 국가로, 현지 법인을 통한 소액금융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iM뱅크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했다. 이어 DGB캐피탈은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에서 소액금융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올해 초에는 DGB금융지주가 싱가포르에서 자산운용사를 신규 출범했다.

JB금융의 진출국은 3개국으로 가장 적지만, 실적 면에서는 호실적을 기록 중이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미얀마와 베트남에 각각 현지 은행·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JB우리캐피탈은 미얀마에서 소액대출 법인을 운영 중이다. 특히 전북은행의 해외 자회사는 지난해 전북은행의 전체 이익의 18%에 달하는 340억원을 벌어들였다.

각 지방은행의 해외 영업점들은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취급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지 법인들은 신흥국 금융환경에 특화된 금융상품인 ‘소액금융’ 취급에 주안점을 뒀다.

소액금융은 빈곤층에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신흥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액금융 법인은 은행보다 신규 인가를 받기 쉬우며, 취급 금리가 높아 마진율도 높다.

한 지방금융 관계자는 “아시아 신흥국들은 높은 성장률에도 금융 인프라가 불충분해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특히 신흥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만큼 금리도 국내보다 높은 편이고, 이에 진출 시 기대 가능한 이익도 크다”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금융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아시아 신흥국 출신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도 영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BNK금융의 부산은행은 지난 8월 외국인 화상 상담 언어를 7개(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네팔어·벵골어)로 늘렸고, 일부 지점에 외국인 유학생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경남은행도 이달 외국인 근로자 전용 대출을 출시했고, 창원·울산 내 일부 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DGB금융의 iM뱅크는 지난 8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JB금융의 전북은행은 지난달 외국인 특화 상담센터인 ‘브라보 코리아(BRAVO KOREA)’를 오픈했고, 전용 모바일 앱 구축을 위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다른 한 지방금융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각 지방은행은 외국인 대상 금융을 적극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BNK금융, 3분기 실적

누적 순익 7051억 건전성 관리 박차

BNK금융그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 등으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에도 이자 이익 및 비이자 이익 증가에 힘입어 3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6억원(6.1%) 늘어난 705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억원 역성장했지만, 경남은행이 515억원의 성장을 기록해 전년보다 432억원 성장한 6755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비은행 부문에서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부실자산 증가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99억원 감소한 12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BNK투자증권은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BNK캐피탈(16억원), 저축은행(17억원), 자산운용(9억원) 등은 증가했다.

아울러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은 1.18%로 직전분기 대비 4bp(1bp=0.01%포인트) 하락해 소폭 개선됐다. 같은기간 연체율은 0.98%로 4bp 소폭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변경 및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BNK금융은 향후 보다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어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비율은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따라 전분기대비 15bp 상승한 12.31%로 개선됐다. /안승진 기자

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한시적 감면

우리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이천역’ 선착순 계약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 조성
전용 60~136㎡ 314가구 일반분양

현대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이천역’을 선착순 계약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입지를 갖춘 메타 선호도 높은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동 규모다. 전용 60~136㎡, 총 1822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31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60㎡ 29가구 ▲60㎡S 34가구 ▲74㎡ 91가구 ▲84㎡



‘힐스테이트 이천역’ 투시도. /현대건설

76가구 ▲84㎡S 76가구 ▲126㎡P 3가구 ▲127㎡P 1가구 ▲136㎡P 4가구다. 전 가구가 중·소형과 펜트하우스 타입

으로 구성되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전용 60㎡와 74㎡, 84㎡ 같은 선호 타입을 반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DL이앤씨 ‘아크로’, 브랜드 선호도 4년 연속 1위

‘하이엔드 아파트’ 소비자 설문
10~50대 1.7만명 중 42% 선택

DL이앤씨는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아크로(ACRO)’가 소비자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전국 10~50대 남녀 1만 67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2.2%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아크로를 꼽았다. 1위를 차지한 아크로와 2위 브랜드 간의 선호도 격차는 두 배에 달했다.

아크로는 다방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4회 연속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모든 성별, 전 연령에서 선호도 1위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자의 경우 각각 42%가 아크로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42% ▲30대 43% ▲40대 42% ▲50대 39% 등으로 집계됐다.

DL이앤씨의 아크로는 ‘아크로 리버파크’를 시작으로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서울 핵심 요지와 한강변에 상징적인 주거 공간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하이엔드 아파트 브

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아크로만의 다양한 특화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

다방 관계자는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도 고급 단지에 대한 니즈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디자인,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고객들이 많은 만큼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하이엔드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 /DL이앤씨

구 호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아크로 베스티뉴’를 곧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 분양을 통해 아크로는 경기도 지역 내 하이엔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미 기자